

‘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

귀어·귀촌 보조금 부당 용자·수산직불금 중복 수령 감착 어선 면세유 공급·폐선 장치 다른 어선 장착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용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용자 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용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용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6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용자받았다.

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용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용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용자받았고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 제외대상 38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8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착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착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L(감면세액 78만 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 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착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

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산·어촌분야 보조

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제빵봉사

13일 서울 성북구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성북봉사나눔터에서 열린 RCY 제정 제56회 스승의 날 기념 사제동행 제빵 봉사활동'에서 성신여고 학생들과 선생님

이 빵을 만들고 있다.

여수박람회장 민간 매각 반대 목소리 높아

전남·경남권 시민사회단체들, 호텔 건축용 매각 반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 매각과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집행위원장 임영찬)와 여수포럼(사무처장 이상훈)은 전남 여수시청에서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 민간매각 중단 촉구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박람회장에 호텔 건설을 위한 부지 민간 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수시와 권오봉 시장을 향해 여수박람회의 개최 정선과 유산에 반하는 호텔 건축용 민간 매각 반대에 동참할 것과 여수시민 및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주민들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활용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수시민과 시민단체가 박람회 개최 집부터 준비과정, 성공 개최까지 노력해온 것과 이후 사후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 도입을 촉구하면서 국회와 청와대에서 1인 시위까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처지다”면서 “시민단체는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후 활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여수시장과 박람회장 민간 매각 반대를 위해 면담한 결과 여수시장은 정부선투자금 상황과 여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현 시장은 길어야 3년인데 30년을 생각하는 지역민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민간 투자자 매각이 이뤄지는 것이 죄무유기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환경당국, 물놀이 수경시설 2500여곳 안전실태 점검

환경당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水景) 시설 2500여 곳에 대한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대전역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점검계획 설명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

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고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224곳이다. 당국은 최근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자체 선정해 점검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대규모점포의 바닥분수 등의 실태도 조사한다. 지난해 기준 파악된 시설 수는 1356곳이다.

당국은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경찰 폭행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4·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54)경위의 허벅지를 3차례 발로 차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주차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30분 이상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119구급대의 협조를 받아 김씨가 숨어있던 승용차를 들어올린 뒤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 “겁이나 숨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제주공항서 탑승객 여객기 혼동해 ‘램프리턴’

제주공항에서 한 승객이 여객기를 혼동해 다른 여객기에 탑승, 활주로로 이동하던 여객기가 탑승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소동이 발생했다.

13일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70852편이 ‘램프리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했다.

이 여객기는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객 1명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파악하고 항공기를 다시 탑승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객기는 승객을 내려준 뒤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늦은 이날 오전 9시분께 청주로 다시 출발했다.

제주항공 측은 “잘못 탑승한 승객이 내린 뒤 해당 여객기는 청주로 출발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손실 입었다’ 지인 살해 60대 구속

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신세아 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앞에서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인천 부평구 인근 상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10년 전 2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빌라 한 채를 준대겠다”면서 “10년이 지난동안 빌라는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후배들 둔기로 폭행한 조폭 2명 구속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B(당시 18)군 등 2명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최근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뒤늦게 조직에 들어온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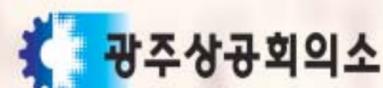
하지만 A씨는 “후배들을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